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03호 [루게 제24516호] 주제103(2014)년 4월 13일 (일요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인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축전을 보내어왔다

평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 김정은동지

나는 당신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또다시 추대되신데 대하여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형제적조선인민이 당신을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국가건설과 경제발전의 여러 분야에서 반드시 새롭고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리라고 믿습니다.

전통적인 중조친선은 두 나라 로세대명동자들께서 친히 마련하고 키워주신것이며 우리의 귀중한 공동의 재부입니다. 중국측은 조선측과 함께 두 나라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켜 두 나라와 두 나라 인민들에게 복리를 가져다주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것입니다.

귀국의 통성변명과 인민의 행복과 안녕을 축원합니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 습근평

2014년 4월 11일

베이징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에서 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또다시 추대되신것을 축하하여 그에게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에서 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어온 꽃바구니를 류룡제 주조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12일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꽃바구니의 명기에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또다시 추대되신것을 축하합니다》라는 글씨가 쓰여져있었다.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이 선물을 드리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태양절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일행, 일본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전략화대표단이 꽃바구니들을

드리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선물은 오가미 정이찌 사무국장이 12일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선물을 오가미 정이찌 사무국장이 12일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일행, 일본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전략화대표단이 꽃바구니들을 드리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태양절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일행, 일본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전략화대표단이 꽃바구니들을

드리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꽃바구니들은 오가미 정이찌 사무국장과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인 가마쿠라 다카오 단장이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꽃바구니들의 명기에는 《존경하는 김정은동지께 태양절을 축하합니다》라는 글씨가 쓰여져있었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자

## 평안북도, 량강도, 함경북도, 강원도, 시, 군경축대회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것을 축하하는 경축대회가 11일과 12일 평안북도, 량강도, 함경북도, 강원도, 시, 군들에서 진행되었다.

경축대회장들은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반드시 이룩하고야말 불타는 열의에 넘쳐있는 각계층 군중들로 차고넘치였다.

대회장들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있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만세!》라는 구호를 외치며 대회장들에 세워져있었다.

또한 대회장들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향을 드립니다》,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 등의 구호판들이 세워져있었다.

대회들에는 지방당, 정전기관, 근로단체일꾼들, 각계층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참가하였다.

대회들은 애국가의 주악으로 시작되었다.

### 평안북도에서

평안북도경축대회에서는 리만건 당위원회 책임비서의 경축보고에 이어 로동계급을 대표하여 도직맹위원회 위원장 최성남, 농업근로자들을 대표하여 통천군 신암협동농장 관리위원장 김경순, 지식인들을 대표하여 국가과학원 화학섬유연구소 부소장 조영진, 청년학생들을 대표하여 평북공업대학 학생 김김일이 축하연설을 하였다.

보고자와 연설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리 공화국의 최고수위에 반합업이 높이 모신것은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최상최대의 행운이고 영광이라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지난 2년간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전반을 현명하게 이끄시어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선군혁명령도의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창성군을 찾으시어 지방공업발전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도록 하시어 인민생활향상의 넓은 길을 열어주시었다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들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은 승리의 높은 금지와 밝은 앞날에 대한 신심드높이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장엄한 진군에 힘차게 떨쳐나서야 하겠습니다.》

보고자와 연설자들은 모두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인민의 아름다움과 품과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영예로운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갈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것을 축하하는 평안북도경축대회장

대하여 강조하였다. 선군조선의 로동계급적 흥건도 건설지건설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이 새로운 비약을 일으켜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사회주의농촌개발로 50畝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알곡생산목표를 기어이 수행하며 태천과 영주를 비롯한 도내 모든 지역과 단위들에서 온실남새와 버섯재배를 대대적으로 벌여 인민들이 실지 그 덕을 볼수 있게 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연구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경영기자들이 은을 내도록 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청년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발걸음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어 언제나 끝바로, 당을 따라 백두의 행군 길을 뜻깊이 걸어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량강도에서

량강도경축대회에서는 리상현 도당위원회 책임비서의 경축보고에 이어 로동계급을 대표하여 도직맹위원회 위원장 박경호, 농업근로자들을 대표하여 해산시험동농장경영위원회 위원장 김일, 지식인들을 대표하여 해산농림대학 학장 최창덕, 청년학생들을 대표하여 김정숙사범대학 학생 김창혁이 축하연설을 하였다.

보고자와 연설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공화국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크나큰 민족적금지와 자부심을 안고 그들의 령도따라 백두밀림에서 개척한 주체혁명위업, 선군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백두산위인들의 불멸의 혁명업적 이 깃들여있는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를 비롯한 도안의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들을 더 잘 꾸리고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해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호전의 투사가 되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구상과 의도를 최단기간내에 완벽하게 수행하며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을 위한 연구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경영기자들이 은을 내도록 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인 농업전선에서 생산적양양을 일으켜 정보당 감자와 알곡수확을 결정적으로 높여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실천을 통하여 그 우월성이 뚜렷이 확증된 대동산과학농림의 요구대로 도안의 모든 농장들에서 감자농사를 잘 지어 인민들이 먹는 문제를 결정적으로 풀어내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과학자, 기술자들이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접히 결합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기 위한 연구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세육판과 야외물놀이장, 소년단야영소를 비롯한 새로운 건설 및 개건물들을 세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일떠세울것이라고 말하였다.

농업부문과 평업부문에서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높은 생산성과로 경제강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모든 일꾼들은 인민이 좋아하고

바라는 일, 인민이 실지 덕을 볼수 있는 일을 더 많이 찾아함으로써 혁명의 성산 백두산이 솟아 빛나는 향강도에서부터 로동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게 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 함경북도에서

함경북도경축대회에서는 함평철도당위원회 비서의 경축보고에 이어 로동계급을 대표하여 김책제철련합기업소 기사장 정영춘, 농업근로자들을 대표하여 청진시 송평구역 송향협동농장 관리위원장 최만영, 지식인들을 대표하여 청진제2사범대학 학장 김철성, 청년학생들을 대표하여 도청년동맹위원회 위원장 송태철이 축하연설을 하였다.

보고자와 연설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나라의 존엄과 무진막강한 국력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국방위원회의 최고직책에 높이 모신로써 우리 공화국이 끝없는 활력에 넘쳐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과학자들은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접히 결합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기 위한 연구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1차회의에서 공화국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되신것은 우리 조국의 무궁번영과 주체혁명위업완성에서 특기할 의의를 가지는 정치적사변이며 우리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 무산광산련합기업소와

철강재생산을 늘이며 지방공업공장들의 현대화를 다그치고 생산정성화의 동음을 높이 울릴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과학농사열풍, 사회주의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알곡 정보당 수확을 결정적으로 끌어올려 뜻깊은 올해에 풍요한 가을을 안아올것이라고 말하였다.

지식인들이 혁명적사상공세의 앞전에서 사상적기수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며 사회주의문명국을 일떠세우는데서 애국의 열정과 재능을 다 바쳐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청년들은 모든 일터마다에서 청춘의 열정과 투지를 천백배로 폭발시켜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강원도에서

강원도경축대회에서는 박정남 도당위원회 책임비서의 경축보고에 이어 로동계급을 대표하여 천태탄광 지배인 김명호, 농업근로자들을 대표하여 원산시 현동남대전문협동농장 관리위원장 최옥녀, 지식인들을 대표하여 원산수산대학 학장 리철, 청년학생들을 대표하여 도청년동맹위원회 위원장 육영철이 축하연설을 하였다.

보고자와 연설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1차회의에서 공화국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되신것은 우리 조국의 무궁번영과 주체혁명위업완성에서 특기할 의의를 가지는 정치적사변이며 우리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 무산광산련합기업소와

철강재생산을 늘이며 지방공업공장들의 현대화를 다그치고 생산정성화의 동음을 높이 울릴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과학농사열풍, 사회주의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알곡 정보당 수확을 결정적으로 끌어올려 뜻깊은 올해에 풍요한 가을을 안아올것이라고 말하였다.

지식인들이 혁명적사상공세의 앞전에서 사상적기수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며 사회주의문명국을 일떠세우는데서 애국의 열정과 재능을 다 바쳐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청년들은 모든 일터마다에서 청춘의 열정과 투지를 천백배로 폭발시켜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시, 군들에서

회령시, 개성시, 문천시, 재령군을 비롯한 시, 군경축대회들에서 보고자와 연설자들은 공화국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다함없는 경모와 열화같은 충정의 마음을 담아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축하를 드리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미래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락관을 가지고 선군혁명의 한걸음씩을 거둬갈것이라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공강, 기업소들에서 생산정성화의 동음을 세차게 울려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그이의 령도따라 백두의 대업을 끝까지 이어나갈 심정의 맹세들이 정주시, 청단군, 연안군, 백천군 경축대회에서 터져나왔다.

당을 따라 만년시련을 이겨온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고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모든 농장들에서 올해 알곡생산계획을 기어이 수행할데 대하여 강조되었다.

장강군, 우시군, 중강군경축대회에서 보고자와 연설자들은 우리 당과 혁명력사에 특기할 사변을 맞이한 인민들의 가슴가슴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나갈 맹세로 끓어번지고있다고 말하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새로운 주체 100년대의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치며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전 힘을 가져올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그이의 령도따라 백두의 대업을 끝까지 이어나갈 심정의 맹세들이 정주시, 청단군, 연안군, 백천군 경축대회에서 터져나왔다.

당을 따라 만년시련을 이겨온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고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모든 농장들에서 올해 알곡생산계획을 기어이 수행할데 대하여 강조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그이의 령도따라 백두의 대업을 끝까지 이어나갈 심정의 맹세들이 정주시, 청단군, 연안군, 백천군 경축대회에서 터져나왔다.

당을 따라 만년시련을 이겨온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고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모든 농장들에서 올해 알곡생산계획을 기어이 수행할데 대하여 강조되었다.

당을 따라 만년시련을 이겨온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고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모든 농장들에서 올해 알곡생산계획을 기어이 수행할데 대하여 강조되었다.

당을 따라 만년시련을 이겨온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고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모든 농장들에서 올해 알곡생산계획을 기어이 수행할데 대하여 강조되었다.

당을 따라 만년시련을 이겨온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고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모든 농장들에서 올해 알곡생산계획을 기어이 수행할데 대하여 강조되었다.

당을 따라 만년시련을 이겨온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고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모든 농장들에서 올해 알곡생산계획을 기어이 수행할데 대하여 강조되었다.

당을 따라 만년시련을 이겨온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고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모든 농장들에서 올해 알곡생산계획을 기어이 수행할데 대하여 강조되었다.

당을 따라 만년시련을 이겨온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고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모든 농장들에서 올해 알곡생산계획을 기어이 수행할데 대하여 강조되었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령

제 7 호

주제103(2014)년 4월 12일

## 황진영, 우정희, 안정호동지들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력영웅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우리 당의 주체적인 음악예술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혁명적이며 진취적인 창작기풍과 열정을 높이 발휘하여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정신이 맥박치는 사상예술성이 강하고 인민들의 진실한 감정을 담은 명곡들을 많이 창작함으로써 찬만군민을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데 크게 기여한 황진영, 우정희, 안정호동지들에게 민족최대의 명절인 태양절을 맞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력영웅칭호와 함께 금메달(마치와 낮) 및 국기훈장 제1급을 수여한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령

#### 인민예술가 황진영동지



주제 48(1959)년 7월 15일 평양시 중구역에서 출생. 평양음악무용대학 작곡학부를 졸업하였으며 중앙방송위원회예술단, 영화 및 방송음악단, 국립교향악단 연주가, 작곡가, 보천보전자악단 작곡가를 거쳐 현재 모란봉악단 부단장으로 사업.

#### 창작곡 :

그대 흘린 피 꽃으로 피리 (1985년)  
그리운 마음 노을처럼 불타네 (1985년)  
미레를 꽃피우는 이 영애 (1985년)  
순간도 마음을 놓치지 말자 (1985년)  
조국은 영원히 기억하리라 (1986년)  
내 고향의 메아리 (1987년)  
심산에 피는 꽃 (1987년)  
생이란 무엇인가 (1987년)  
그날의 영웅들처럼 (1988년)  
밝은 길어도 (1988년)  
병사의 노래 (1988년)  
이 고향아 (1988년)  
언제나 병사시절처럼 (1988년)  
그리워 (1989년)  
사랑의 불빛 (1989년)  
푸른 버드나무 (1989년)  
울거리라 기쁨의 노래 (1989년)  
위대한 태양 (1989년)  
내 이름 묻지 마세요 (1990년)  
하나의 대가정 (1990년)  
흰눈이 내리는데 (1990년)  
같이 가자요 (1991년)  
나의 어머니 (1991년)  
마음도 하나 (1991년)  
말년의 달아 (1991년)  
사회주의 지킵시 (1991년)  
창춘들이 받들자 우리 당을 (1991년)  
창춘의 제복 (1991년)  
추억 (1991년)  
축인 (1991년)  
우동불 (1991년)  
경례를 받으시라 (1992년)  
김일성대원수 만민제 (1992년)  
다시 만남시다 (1992년)  
배우자 (1992년)  
휘날려라 공화국이 우리 삼색기 (1992년)  
우리를 보라 (1992년)  
당신만 있으면 우리는 이긴다 (1993년)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 (1993년)  
대륙 (1993년)  
장군님 생각 (1993년)  
젊음은 금행렬차 (1993년)  
조국이여 말해다오 (1993년)  
우리의 7.27 (1993년)  
우리 사랑한다 (1993년)  
병사들은 대답했다 (1994년)  
친만이 행복만 피리라 (1994년)  
해빛같은 미소 그림습시다 (1994년)  
우리는 행복한다 (1994년)  
우리 민족 제일일세 (1994년)  
우리 앞날 밝다 (1994년)  
우리의 김정일동지 (1994년)  
인민은 부르며 따르네 (1994년)  
우리는 수령님의 제자 (1995년)  
군민일치 노래부르자 (1997년)  
그리움의 대하 (1997년)  
나의 길 (1997년)  
부쇠마치 (1997년)  
병사소식 전해다오 (1997년)  
복행렬차 기적소리 (1997년)  
수령님의 조국 (1997년)  
새 친구 (1997년)  
조국과 나 (1997년)  
포병의 노래 (1997년)  
노래하세 친군인 인민의 장군 (1998년)  
내 고향을 나는 사랑해 (1998년)  
백두산의 꽃 (1998년)  
충신의 한모습 (1998년)  
행복의 요람 (1998년)  
희망의 등대 (1998년)  
위대한 내 나라 (1998년)  
군가에 발을 맞추자 (1999년)  
번개처럼 정의의 총검 (1999년)  
병사의 발자국 (1999년)  
심장을 바치자 어머니조국에 (1999년)  
장군님 만나뵈은 그날에 살리 (1999년)  
조선치마저고리 총을시구 (1999년)  
끝없는 사랑의 길 (1999년)  
어느 사단 출신인가 (1999년)  
인민의 소원 (1999년)  
고향에서 온 편지 (2000년)  
내 삶의 첫걸음 (2000년)  
장군님은 병사들과 함께 계시네 (2000년)  
흥하는 내 나라 (2000년)  
이 대동강 어머니강이여 (2000년)  
안해의 노래 (2000년)  
일당백 (2000년)  
간절한 마음 (2001년)  
고마워요 다시 만나요 (2001년)  
그 동문 제대군인처럼입니다(2001년)

더 높이 더 빨리 (2001년)  
전선길에 눈이 내리네 (2001년)  
조국을 위하여 불타는 시칠 (2001년)  
축하의 인사드리네 (2001년)  
아버지모습 (2001년)  
위대한 심장의 노래 (2001년)  
멋있는 사람 (2002년)  
문지 말라 (2002년)  
병사의 경례 (2002년)  
백두와 한나는 내 조국 (2002년)  
순간과 한생 (2002년)  
장군님 은리에 은 나라가 흥이로세 (2002년)  
뜨거운 전선길 (2002년)  
우리는 하나 (2002년)  
이 하늘 이 땅에서 (2002년)  
군가소리 높여라 (2002년)  
나에게 조국을 노래하라면 (2003년)  
단숨에 (2003년)  
반나무집 그 총각 영웅이행사 했다 (2003년)  
복 많은 내 나라 (2003년)  
불타는 그리움 (2003년)  
사랑의 힘은 얼마나 강한가 (2003년)  
선군승리 열두달 (2003년)  
선군승리의 노래를 싣고 (2003년)  
선군은 백승의 보검 (2003년)  
생일축하하리리요 (2003년)  
전승의 메아리 (2003년)  
조국에 창춘을 바치기 (2003년)  
종달새야 (2003년)  
꽃 좋은 시절 (2003년)  
최전선길을 걸으며 (2003년)  
아니나다를까 (2003년)  
어느다론 추억이여 (2003년)  
우리의 군대 제일이리네 (2003년)  
우리를 부르시라 (2003년)  
이 땅을 자랑하네 (2003년)  
3차로 넘어 자랑하세 (2004년)  
고향집에 비친 칠색무지개 (2004년)  
병사의 아침이여 (2004년)  
시내가집 새끼사 (2004년)  
장군님과 영웅들 (2004년)  
장군님 품은 내 삶의 혜초는 하늘 (2004년)  
중대는 병사시절 나의 고향 (2004년)  
행복한 우리 마을 (2004년)  
영웅들의 웨침 (2004년)  
인민의 마음 (2004년)  
원군은 애국일세 (2004년)  
내 조국을 아름답게 꾸리자 (2005년)  
승리자들 (2005년)  
장군님 꽃피우신 선군의 터리야 (2005년)  
조국은 너를 알게 되리 (2005년)  
조국의 밤 (2005년)  
중대는 혁명의 계주봉 (2005년)  
노래하라 전선길아 (2006년)  
단결은 승리 (2006년)  
선군시대 녀성찬가 (2006년)  
정일봉의 새벽 (2006년)  
태양의 꽃 (2006년)  
휘파람총과 (2006년)  
융합한 사나이일세 (2006년)  
위대한 우리 조국 (2006년)  
미루벌의 종다리 (2008년)  
선군조국에 드리는 노래 (2008년)  
땅과 농민 (2008년)  
2월은 아름다워라 (2009년)  
더 가까이 오시네 (2009년)  
돌과파라 최첨단을 (2009년)  
동해명승가 (2009년)  
사회주의 너를 사랑해 (2009년)  
수령님 뜻 꽃피워가네 (2009년)  
행복 (2009년)  
용감하라 (2009년)  
용사들에게 드리는 노래 (2009년)  
당은 장군님의 품 (2010년)  
당을 노래하노라 (2010년)  
당을 따라 창춘들이 앞으로 (2010년)  
뜻 잊을 동북땅아 (2010년)  
복행렬차 (2010년)  
백두의 산제비 (2010년)  
백학이 날아든다 (2010년)  
사파치너 (2010년)  
선군시대는 영웅시대 (2010년)  
송고한 경의 (2010년)  
평양 (2010년)  
행복의 나나난노 (2010년)  
희원의 불빛 (2010년)  
그이는 우리의 선군령장 (2011년)  
당기여 영원히 그대와 함께 (2013년)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 (2013년)  
위대한 그 이름은 승리의 기치(2013년)

#### 공훈예술가 우정희동지



주제 43(1954)년 4월 11일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서 출생. 평양음악무용대학 졸업 후 음악무용대학 교원, 백두산창작단 배우, 만수대예술단 작곡가, 왕재산경음악단 작곡가, 보천보전자악단 작곡가를 거쳐 현재 모란봉악단 창작실 실장으로 사업.

#### 창작곡 :

한생을 바쳐가자 다진 그 맹세 (1982년)  
당의 품에 별처럼 빛나게 살리 (1983년)  
나에게 가장 귀중한것은 (1984년)  
당은 어머니모습 (1984년)  
밤하늘에 내리는 눈송이야 (1985년)  
전사의 길 (1986년)  
김정일화 (1988년)  
나는 생각해 (1988년)  
빛나라 정일봉 (1988년)  
푸른 하늘 펼치고싶어라 (1988년)  
다시 부르는 소리 (1989년)  
눈꽃이 핀 고향집 (1989년)  
이 하늘 이 땅에서 (2002년)  
군가소리 높여라 (2002년)  
나에게 조국을 노래하라면 (2003년)  
단숨에 (2003년)  
반나무집 그 총각 영웅이행사 했다 (2003년)  
복 많은 내 나라 (2003년)  
불타는 그리움 (2003년)  
사랑의 힘은 얼마나 강한가 (2003년)  
선군승리 열두달 (2003년)  
선군승리의 노래를 싣고 (2003년)  
선군은 백승의 보검 (2003년)  
생일축하하리리요 (2003년)  
전승의 메아리 (2003년)  
조국에 창춘을 바치기 (2003년)  
종달새야 (2003년)  
꽃 좋은 시절 (2003년)  
최전선길을 걸으며 (2003년)  
아니나다를까 (2003년)  
어느다론 추억이여 (2003년)  
우리의 군대 제일이리네 (2003년)  
우리를 부르시라 (2003년)  
이 땅을 자랑하네 (2003년)  
3차로 넘어 자랑하세 (2004년)  
고향집에 비친 칠색무지개 (2004년)  
병사의 아침이여 (2004년)  
시내가집 새끼사 (2004년)  
장군님과 영웅들 (2004년)  
장군님 품은 내 삶의 혜초는 하늘 (2004년)  
중대는 병사시절 나의 고향 (2004년)  
행복한 우리 마을 (2004년)  
영웅들의 웨침 (2004년)  
인민의 마음 (2004년)  
원군은 애국일세 (2004년)  
내 조국을 아름답게 꾸리자 (2005년)  
승리자들 (2005년)  
장군님 꽃피우신 선군의 터리야 (2005년)  
조국은 너를 알게 되리 (2005년)  
조국의 밤 (2005년)  
중대는 혁명의 계주봉 (2005년)  
노래하라 전선길아 (2006년)  
단결은 승리 (2006년)  
선군시대 녀성찬가 (2006년)  
정일봉의 새벽 (2006년)  
태양의 꽃 (2006년)  
휘파람총과 (2006년)  
융합한 사나이일세 (2006년)  
위대한 우리 조국 (2006년)  
미루벌의 종다리 (2008년)  
선군조국에 드리는 노래 (2008년)  
땅과 농민 (2008년)  
2월은 아름다워라 (2009년)  
더 가까이 오시네 (2009년)  
돌과파라 최첨단을 (2009년)  
동해명승가 (2009년)  
사회주의 너를 사랑해 (2009년)  
수령님 뜻 꽃피워가네 (2009년)  
행복 (2009년)  
용감하라 (2009년)  
용사들에게 드리는 노래 (2009년)  
당은 장군님의 품 (2010년)  
당을 노래하노라 (2010년)  
당을 따라 창춘들이 앞으로 (2010년)  
뜻 잊을 동북땅아 (2010년)  
복행렬차 (2010년)  
백두의 산제비 (2010년)  
백학이 날아든다 (2010년)  
사파치너 (2010년)  
선군시대는 영웅시대 (2010년)  
송고한 경의 (2010년)  
평양 (2010년)  
행복의 나나난노 (2010년)  
희원의 불빛 (2010년)  
그이는 우리의 선군령장 (2011년)  
당기여 영원히 그대와 함께 (2013년)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 (2013년)  
위대한 그 이름은 승리의 기치(2013년)

희망찬 미래로 전진 또 전진 (1999년)  
아 그리움속에 기다림속에 (1999년)  
감나무마을 (2000년)  
대홍이와 흥단이 (2000년)  
우리 장군님의 그리움 (2000년)  
그날처럼 (2001년)  
내 사랑 나의 평양 (2001년)  
전선에서 만나자 (2001년)  
함께 갑니다 (2001년)  
잊지 못할 열두달입니다 (2001년)  
장군님 소식 (2002년)  
장군님은 우리의 조국 (2002년)  
장군님의 백두산 (2002년)  
우리는 병사시절에 배웠네 (2002년)  
이 강산 높은 명 협한 길에 (2002년)  
그리움의 백두산 (2003년)  
장군님 새날이 밝아옵니다 (1994년)  
나는 병사가 되었는데 (2003년)  
내 나라는 일심단결의 대가정 (2003년)  
내 너를 한치도 내주지 않으리 (2003년)  
내 한생 따르리 (2003년)  
두만강 내 조국의 강이여 (2003년)  
민음의 노래 (2003년)  
백두고향 이갈나무야 (2003년)  
필승의 노래 (2003년)  
내 조국의 숲이여 (2004년)  
백두의 이갈단풍 (2004년)  
지랑하세 선군8경 (2004년)  
모닥불 (2005년)  
전선길의 배주세 (2005년)  
백색산추억 (2005년)  
행복의 아리랑 (2006년)  
나래처럼 선군조선 천리마여 (2009년)  
어머님을 따르리 (2009년)  
영웅의 고지여 (2009년)  
조국이 찾는 모습 (2010년)  
회전에서 만나자 (2010년)  
뜻깊은 사진 (2010년)  
영원한 태양의 봄 (2010년)  
잊지 말자 그날의 영웅들을 (2010년)  
12월의 눈송이 (2011년)  
구면천구 (2011년)  
천년을 책임지고 민년을 보충하자 (2011년)  
그대는 어머니 (2012년)  
조선의 힘 (2012년)  
뿌리가 되자 (2012년)  
인민은 일원단심 (2012년)  
인생의 영광 (2013년)

#### 인민예술가 안정호동지



주제 47(1958)년 6월 11일 평양시 중구역에서 출생. 평양음악무용대학 졸업 후 인민군협주단 연주가, 만수대예술단 연주가, 왕재산경음악단 연주가, 작곡가, 보천보전자악단 작곡가를 거쳐 현재 모란봉악단 창작실 부실장으로 사업.

#### 창작곡 :

그 녀원 어찌하고 떠나갔는가 (1976년)  
마음을 달래가며 살아가세나 (1976년)  
원호물자 그 누가 강을 넘기랴 (1976년)  
그대가 나에게 준것은 (1992년)  
소백수의 진달래 (1992년)  
온 세상이 부러워하네 (1992년)  
그날처럼 (2001년)  
내 사랑 나의 평양 (2001년)  
전선에서 만나자 (2001년)  
함께 갑니다 (2001년)  
잊지 못할 열두달입니다 (2001년)  
장군님 소식 (2002년)  
장군님은 우리의 조국 (2002년)  
장군님의 백두산 (2002년)  
우리는 병사시절에 배웠네 (2002년)  
이 강산 높은 명 협한 길에 (2002년)  
그리움의 백두산 (2003년)  
장군님 새날이 밝아옵니다 (1994년)  
나를 병사가 되었는데 (2003년)  
내 나라는 일심단결의 대가정 (2003년)  
내 너를 한치도 내주지 않으리 (2003년)  
내 한생 따르리 (2003년)  
두만강 내 조국의 강이여 (2003년)  
민음의 노래 (2003년)  
백두고향 이갈나무야 (2003년)  
필승의 노래 (2003년)  
내 조국의 숲이여 (2004년)  
백두의 이갈단풍 (2004년)  
지랑하세 선군8경 (2004년)  
모닥불 (2005년)  
전선길의 배주세 (2005년)  
백색산추억 (2005년)  
행복의 아리랑 (2006년)  
나래처럼 선군조선 천리마여 (2009년)  
어머님을 따르리 (2009년)  
영웅의 고지여 (2009년)  
조국이 찾는 모습 (2010년)  
회전에서 만나자 (2010년)  
뜻깊은 사진 (2010년)  
영원한 태양의 봄 (2010년)  
잊지 말자 그날의 영웅들을 (2010년)  
12월의 눈송이 (2011년)  
구면천구 (2011년)  
천년을 책임지고 민년을 보충하자 (2011년)  
그대는 어머니 (2012년)  
조선의 힘 (2012년)  
뿌리가 되자 (2012년)  
인민은 일원단심 (2012년)  
인생의 영광 (2013년)

정일봉의 소백수 (2001년)  
20세기 추억 (2002년)  
나의 전호 (2002년)  
너도나도 일심단결 (2002년)  
조선의 첫 총대가정 (2002년)  
정일봉의 우뢰소리 (1994년)  
천둥을 사랑하라 (2002년)  
사랑의 왕자 (2002년)  
새봄의 고향악 (2002년)  
장군님을 온 겨레가 따릅니다 (2002년)  
조선의 첫 총대가정 (2002년)  
첼링아리랑 (2002년)  
총대를 사랑하라 (2002년)  
초소의 새벽길 (1994년)  
효성은 조선의 가풍 (1994년)  
일평생의 평양에서 (1994년)  
장군님의 백두산 (1995년)  
나의 소원 (1995년)  
부르자 자랑찬 병사의 노래 (1995년)  
장군님 백마 타고 달리신다 (1995년)  
장군님의 군대가 되자 (1995년)  
정들었어요 (1995년)  
정일봉에 안개흐르네 (1995년)  
조선의 행운 (1995년)  
우리 안겨사는 품 (1995년)  
비행사의 노래 (1996년)  
백두산에 오르자 (1996년)  
수령님은 영원한 인민의 태양 (1996년)  
정일봉은 제일봉일세 (1996년)  
존경합니다 (1996년)  
최고사령관이 울려퍼 (1996년)  
태양의 손에는 영원하리라 (1996년)  
해돋이순간 (1996년)  
여기가 내 사는 조국이여 (1996년)  
우리가 사랑하는 노래 (1996년)  
우리 노래 모두 합치면 (1996년)  
인민이 부르는 그 이름 (1996년)  
3대 장군 나는 잊지 못해 (1997년)  
나의 선생님 (1997년)  
명평단 내리시라 우리 사단에 (1997년)  
불빛입니다 해빛입니다 (1997년)  
삼지연못가에서 (1997년)  
장군님과 인민 (1997년)  
장군님의 일요일 (1997년)  
정일봉 너를 닮으리 (1997년)  
정일봉의 눈보라 (1997년)  
정일봉의 자장가소리 (1997년)  
푸른 전나무 (1997년)  
오늘도 그들은 수령님 효위전사 (1997년)  
우리를 부러워하라 (1997년)  
광산마을 시내가에서 (1998년)  
나의 심장에 물으며 사내 (1998년)  
나의 고향집 (1998년)  
내 사랑 고향집 (1998년)  
통탄을 나는 사랑해 (1998년)  
정일봉의 밤이여 (1998년)  
정일봉의 불맛이 (1998년)  
조선의 그 이름 하늘에 새겼네 (1998년)  
제일 좋은 때지오 (1998년)  
혁명의 계주봉 (1998년)  
땅크병의 노래 (1998년)  
영원한 조선의 맹세 (1998년)  
에쁜이 (1998년)  
신천의 웨침소리 (1999년)  
자강도는 내 나라의 자랑도일세 (1999년)  
장군님은 노래를 사랑하시네 (1999년)  
준마차 (1999년)  
행복의 감자꽃 (1999년)  
을계물이창춘가 (1999년)  
인민의 축원을 받으시라 (1999년)  
내 삶의 사계절 (2000년)  
수령님과 우리 인민 (2000년)  
정든 고향 제 집처럼 (2000년)  
정일봉은 조선의 고향 (2000년)  
정일봉을 안고 살리 (2000년)  
정일봉의 장군님 (2000년)  
정일봉의 아침 (2000년)  
행복은 내 삶의 길동무 (2000년)  
영웅병사와 고향처럼 (2000년)  
이 땅의 주인들은 말하네 (2000년)  
강성부흥아리랑 (2001년)  
내 조국의 밝은 달아 (2001년)  
로동당세월속에 오래 사세오 (2001년)  
불멸의 첫 자욱 (2001년)  
선군의 길을 따라 행복이 오네 (2001년)  
장군이시여 번개를 치시라 (2001년)  
정일봉에 축포가 오른다 (2001년)

# 백두산위인들의 선군령도업적 천만년 길이 빛나리

## 우리 수령님 오늘도 백두산에 계신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장구한 혁명활동의 전기간 혁명투력강화에 선차적인 힘을 쏟으신 김일성동지께서는 한세대에 가장 포악한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는 20세기 군사적기적을 창조하시였으며 인민군대를 일당백의 혁명강군으로 키우시고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실현하시여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민대의 변명을 위한 강력한 군사적압박을 마련해주시였습니다.》

4월의 만수대, 호미의 물결, 그리움의 물결이 대하처럼 이 언덕에 굽어진다. 태양절을 이룰 앞둔 오늘 그 흐름은 더없이 출기찬듯.

4월 13일! 우리 인민이 자랑하고 세계가 기억하는 기념일이다. 22년전 바로 이날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따라 장구하고도 영광스러운 혁명의 길을 걸으면서 항시적으로 갈망해온 력사적인 소원을 마침내 풀게 되었다. 참으로 일대 경사의 날이었다.

만수대언덕에 백두산을 배경으로 높이 모신 어버이수령님의 동상, 수령님께서 백두의 용암대를 밟으시고 손들어 앞을 가리키시는것만 같으신 모습을 우러르니 항일전의 그날부터 수령님께서 한평생 줄기차게 이어오신 선군혁명의 위대한

력사적로정에 뜻깊게 아로새겨진 4월 13일의 의미가 더욱더 가슴에 파고든다.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80돐을 앞둔 주체81(1992)년 4월 13일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격동적인 소식에 접하였다.

주체의 혁명무력을 창건하시고 령도하시여 조국과 혁명앞에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원수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당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당시) 결정이 온 나라를 뒤흔들어놓았다.

전국이 환희로 끓어넘었다. 천리방산초소마다에서, 방방곡곡 일터들과 집집에서 환희성이 터져올랐다.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만세!》를 소리높이 외쳤다.

조선의 커다란 경사는 세계 진보적인류의 공동의 경사이기도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원수칭호를 수여받은 신징과 관련하여 수많은 나라의 당, 국가 및 정부수반들, 국방상들, 각계

인사들이 우리 수령님을 《가장 위대한 영웅》, 《천제적인 군사대가》, 《강철의 투사》, 《영도와 승리의 기수》로 높이 칭송하면서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어왔다.

우리 인민과 온 세계가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원수이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호모와 칭송열로 세차게 끓어넘치던 그해 4월에 우리 수령님께서선 전당, 전군, 전민의 절절한 념원속에 력사적인 사전을 남기시었다.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열렬한 칭송과 뜨거운 지성이 담겨있는 대원수복을 입으신 거룩하신 모습을 력사의 갈피에 남기시었다.

만수대언덕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우러르니 대원수복을 입으시였던 그날의 수령님모습이 더욱 가슴뜨겁게 안겨온다.

백두산정에 서서 멀리 지나온 항일의 혈전만리길을 더듬어보시는가, 수령님께서 손들어 가리키시는 곳은 바로 김형직선생님께서 물려주신 두자루의 권총을 유산으로 하여 총대로 개척하고 총대를 높이 들고 이어오신 혁명의 한길, 영원한 승리의 길이 아니겠는가.

력사상 처음으로 선군혁명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항일대전과 반미대전을 빛나는 승리로 이끄셨으며 위대한 병진로선으로 이 땅에 그 어떤 침략자들도 범접 못하는 자위의 생세를 쌓아올리시고 혁명과 건설의 빛나는 모범인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신 우리 수령님은 참으로 위인들의 위인, 영웅중의 영웅이시이다.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천만리 혁명의 길을 걸으며 우리 민족은 철의 진리를 력사에 새기었다.

총대이자 민족의 생명이고 혁명의 승리라는 바로 그것이이다.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와 자랑하면서 우리 민족은 왜 사대와 망국을 수명처럼 감수하지 않았던 안되었는가.

비참한 식민지악민족으로 피눈물을 뿌리던 수난의 력사에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되어 종지부를 찍게 되었으며 무엇으로 하여 우리 조국과 인민의 존엄이 민족사상 최고의 경지에 올라서고 강성변영으로 치달을 수 있게 되었는가.

바로 총대를 틀어쥐신 철세의 애국자, 불세출의 영웅을 수령으로 모심으로 하여 우리 민족은 마침내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으며 우리 조국과 인민의

운명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조선의 국력은 하늘에 닿게 되었다.

진정 이 세상에서 오직 한분 우리 수령님께서만이 알고계시었다. 도란에 빠진 민족의 운명을 무엇으로 구원하여야 하며 민족의 밝은 전도를 어떻게 개척하고 후손만대의 번영과 행복은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가를 수령님께서만이 밝혀 주실수 있었다.

우리 수령님에 의하여 총대의 위력으로 전진하는 조선혁명의 영광스러운 력사가 시작되었고 총대를 높이 든 길에서 조국해방의 력사적 위업도, 반미대전의 승리로 이루어졌으며 불멸의 사회주의강국이 일떠섰다.

홀려간 세기에 있었고 현세에도 있는 세계적인 만리,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제국주의의 손아래서 피비린 전란을 겪고 수난과 치욕을 당하는 비참한 현실을 보며 우리 인민은 선군으로 조선의 힘을 키우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얼마나 탁월한 수령이신가를 다시금 절감하고있으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민대의 변명을 위한 강력한 군사적 압박을 민족앞에 유산으로 남기게 되었으며 우리 조국과 인민의

있다.

이 세상에 침략자들과 맞서 혁명전쟁을 벌린 군사평판들이 많았어도 우리 수령님처럼 한세대에 가장 포악한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는 군사적기적을 창조한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은 없으며 사회주의건설을 이끌었던 수많은 국가지도자들이 있었지만 우리 수령님처럼 혁명활동의 전기간 혁명투력강화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 피로써 쟁취한 혁명의 전 위업을 영예롭게 수호하여 물려준 령도자는 없다.

한 나라의 건국력사가 혁명의 첫 기슭에서 수령님께서 틀어잡았던 두 자루의 권총으로부터 시작되었듯 세계의 군건설사에 전례없는것이지만 그 군대가 수령의 령도밑에 유격전과 정규전도 치르고 총포성능은 대결전을 벌리는 파정에 만능의 전법과 백승의 경험을 소유함으로써 일당백의 무력으로 장성하였을뿐 아니라 그 어떤 현대전에도 능히 대처할 수 있는 자기 식의 공격수단과 방어수단들을 완비한 무전막강한 군대로 다져진 실례는 력사에 더구나 있어본적 없다.

우리 인민군대의 그와 같은 영광스럽고 자랑찬 력사와 불멸의 위력, 수령님께 다함없는 감사를 드리고

떠들고 원자탄으로 우리를 위협공갈하던 시대를 끝장낸 우리 나라의 강력한 국방공업, 그 모두의 창시자는 우리 수령님이시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원수! 20여년전 4월의 그날 어느 한 나라의 인사가 말한것처럼 위대한 수령님께서선 1992년이 아니라 그 오백전에 이미 대원수칭호를 받으셔야 하였다.

잊지 못할 그 4월에 대원수칭호를 받으신 어버이수령님을 우러르며 세상에 대원수라는 칭호보다 더 높은 칭호가 없는것을 우리 군대와 인민은 한스러워하였다.

강철의 령장만이 헤칠수 있는 고난과 시련을 헤치시였고 위인들의 위인만이 새길수 있는 불멸의 군건설력사를 펼치신 우리 수령님께서 서계시는 만수대언덕.

꽃피는 계절이건만 어버이수령님과 함께 있는 백두산에 흰눈이 녹을 줄 모르는것은 백두에서 총대로 시작된 혁명을 끝까지 총대로 완성하여야 함을 한시도 잊지 말라고 해서 아니겠는가.

그렇다. 우리 수령님께서 백두산에서 손들어 가리키고계시는것이다.

위대한 장군님 따라 선군의 천만리길을 걸어왔듯이 또 한번의 위대한 명장인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총대로 승리하는 그 한길만을 변함없이 걸으라고!

본사기자 박 철

### 위대한 현신자의 단별숨옷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선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준엄했던 고난의 행군시기를 감회깊이 더듬어보시었다.

그러시던 그이께서는 문득 자신께서 입고계시는 솜옷을 보시며 나는 이 솜옷을 어버이수령님을 잃고 고난의 행군에 들어서던 때부터 오일까지 입고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찬바람, 눈비를 다 맞으시며 언제나 전선길에 계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10여년째나 단별솜옷으로 지내오시었다는것을 비로소 알게 된 일군들의 놀라움은 컸다.

### 소박한 야전식사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 인민군부대를 찾아 전선시찰의 길에 오르시였던 어느날 점심무렵이었다.

점심을 마련하기 위하여 멀지 않은 곳으로 사람을 보내려고 서두르는 일군들을 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선 그들을 만류하시며 있는것으로 간단히 옹기나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었다.

잠시후 평평길한 너럭바위에 소박한 점심식사가 펼쳐졌다.

빵 몇개가 전부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선 서운한 심정

### 덕수터에 깃든 사연

주체97(2008)년 8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선 어느 한 인민군부대를 찾으시었다.

가가지 나무들속에 묻혀있는 병영이며 꽃향기풍기는 아담한 야외 휴식장을 돌아보시며 만족을 금치 못해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선 중대에서 자제로 건설한 발전소의 물을 리용하여 만든 덕수터에 이르시었다.

삼복치지도 제일 무더운 날인데다가 온도가 최고로 오르는 정오때 인자라 덕수터의 시원한 물보라를 일군들의 마음을 못내 풀어당겼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도 맘에 꼭 짊은 야전복을 입으시고 뜨겁게 내려



조국의 운명 지키러 위대한 장군님 끊임없이 이어가신 전선강행군길의 단산사연을 전하는 오성산 본사기자 리명일 찍음

### 까칠봉은 말한 다

까칠봉! 이름조차 귀에 설었던 오성산의 이 봉우리가 이 나라 인민모두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지게 된것은 언제부터였는가.

아마도 그것은 우리 원수님께서 까칠봉초소를 찾으시던 6월의 그날을 누구나 잊지 못하고있다.

우리의 망막과 귀전을 아프게 허비던 350m! 정전현상이 백지화되고 이미 전정의 도화선에 불이 달린 때에 적들의 총탄이 총성보다 먼저 날아와 박힐 그 위험천만한 곳에 우리 원수님께서 서계시었다.

절대로 그곳에만은 나가실수 없다고 간절히 말씀올리는 지휘관들에게 오성산에 왔다가 병사들을 만나지 않고 가면 얼마나 설심해하겠는가, 그들을 만나지 않으면 발길이 떨어질것 같다고 하시며 아무리 위험해도 꼭 나가겠다고 말씀하신 우리 원수님.

최고사령관이 최전선을 지키는 병사들을 만나고 기념사진을 찍었다는것을 알면 그들의 부모들이 얼마나 기뻐하셨는가, 그것을 생각해서라도 꼭 나가봐야 하겠다고 하시며 우리 원수님 야전차를 초소로 돌려시었다는 보도의 구절 구절은 만사람의 가슴을 쳤다.

우리의 초소를 거는 적들의 총구가 육안으로 뚜렷이 보이는 곳, 독바섯같은 적들의 초소에서 육안 거리는 원수들의 물결이 코앞에 보이는 곳까지 몸소 나오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뜻밖에도 비유게 된 까칠봉초소 군인들의 걱정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할수 있으랴.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목청껏 만세를 터치고있었지만 적초소까지의 거리가 너무도 가까울 곳이어서 병사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눈물만 흘리었다.

본사기자 김 순 영



백두산절세위인들을 대를 이어 높이 모신 민족의 긍지와 자부심 하늘높에 차넘친다. 본사기자 김 중 훈 찍음

### 그 품속에 꽃피는 미래

기쁨에 넘쳐 야영소로 향하는 아이들의 행복넘친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뜻 잊게 어려운 것은 나라의 축복속에 높이 내세워주시던 뜨거운 그 손길.

지난해 5월, 평양시교향성 등산소년단야영소를 찾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격정에 넘쳐 울고 웃으며 기념사진을 찍은 우리 아이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선 우리들을 향해 환하게 웃으시며 손을 흔들어주시었습니다.

—내 머리도 다정히 쓰다듬어주시면서 무슨 활동을 하였던가고 물어주시었습니다.

기쁨에 겨워 터지던 야영생들의 목소리가 귀전에 쟁쟁히 울려온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후대들을 어떻게 키우며 어떻게 교양하는가 하는것은 우리 혁명의 미래와 직접 관련되어있습니다.》

조국의 미래를 날달리 사랑하시는분, 이것이 우리 인민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러르면서 삼장으로 결합하는 또 하나의 경정이다.

최대열점지역의 섬초소를 찾아주시신 그날에도 향명을 뚜렷이 품에 안아주시던 인자하신 그 영상,

조선소년단창립 66돐 경축 행사에 참가한 소년단체대표들을 본사기자 리명일 찍음

평양시의 육아원과 애육원을 찾으시여 《아버지!》라고 부르며 달려와 안기는 원아들을 사랑의 한몸에 꼭 안아주시던 정깊으신 그 모습, 우리가 걸치는 온갖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며 혁명을 하고있는 중요한 목적도 바로 우리 아이들이 위해서라고, 그들에게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행복을 마련해주어주시는 사회주의만세소리, 로동당만세소리가 영원히 더 높이 울려 퍼지게 해야 한다고 하시던 우리 원수님의 그 말씀은 얼마나 뜨거웠던가.

우리 어린이들이 행복분만을 걱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아이들은 조국의 미래이며 앞날의 주인공이다. 우리 원수님의 품에 안긴 행복찬 아이들의 모습에서 인민은 태양의 빛날속에 더 아름답게 만발할 이 땅의 미래를 확신한다.》

본사기자

# 박근혜는 황당무계한 궤변으로 온 민족을 우롱하지 말아야 한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대변인 담화

지금 남조선당국은 국무총리나 통일부장관과 같은자들을 내세워 우리더러 이른바 통일에 대한 구상 아닌 《구상》을 펴고 해 아까지 반응이 없느냐, 적극적으로 호응하기를 《기대》한다느니 하는 소리를 연일 늘어놓고있다.

그러면서 마치 이 《드레즈덴선언》이 이행되면 조선반도의 경제완화에 도움이 되고 북남관계에서 획기적인 진전이 이룩될것처럼 너스레를 떨고있다.

남조선당국의 소란스러운 감언리설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표정은 평범하다.

보기에도 듣기에도 생소한 《드레즈덴선언》이란 얼마전 해외행각에 나섰던 박근혜가 도이쉴란트의 드레즈덴에서 《인도주의적문제해결》과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기반구축》, 《통일성취》 등을 비롯한 오가장량의 내용을 굶어오 발표한 《대북3대제언》이라는것을 두고 이르는 말이다.

그가 누구는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유익한 일을 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것은 없었겠다.

그러나 통일이라는 막대한 민족사적업무를 불분한 기도실현에 이용하려 한다면 그것은 용서할지 못할 대역죄로 될것이다.

벌써부터 《드레즈덴선언》은 남조선정체에서조차 《알맹이가 없고 《진정성이 부족하며 《실질적방도》가 제시되지 않은 빈껍데기제언으로, 《인생》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 선언 아닌 《선언》으로 혹평을 받고있다.

남조선당국이 론의할 일고의 가치도 없이는 《드레즈덴선언》이라는것을 놓고 우리들 《호응》해 주면이라는 어리석은 필적을 표명하고서있는 이상 우리의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첫째로, 《드레즈덴선언》은 민족대부담을 남의 나라 땅에까지 들고 다니며 비굴하게 날아댄 민족반역자의 놈들이다.

이런 해외행각에서 박근혜는 회담이나 오찬, 내외기자회견, 유적지참관 등 여러가지 리용하여 외세에는 수다를 떨며 아무볼종교도 통족에 대해서는 갖은 험담과 악설로 험뜯어대며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할 꼴을 유감없이 드러내보였다.

그중에서도 우리 민족의 세기적숙원인 통일문제를 거론해대며 풍수없이 놀아댄것은 두고두고 저주받을 일이다.

외세에 의해 강요된 민족분열의 쓰라린 비극과 고통은 밖에 들고나갈 자랑거리도 아니며 오히려 한시바베 가서야 할 우리 민족의 수치이고 불행이다.

지각이 덜 든 총아나네도 집안싸움에 밖에 새어나갈까봐 얼려진 창문부터 닫는다 했다.

결국 박근혜의 그 무슨 《드레즈덴선언》은 지각이 덜 든 총아나네보다 못한 박근혜만이 빚어낼수 있는 서론짜리결과물이다.

지난 시기 남조선에 아무리 《유신》과 초정치와 군부파쇼독재로 악명을 떨친 시기가 있었다고 해도 통일문제만은 레외없이 북과 남을 서로 오가며 논의하고 그와 관련한 성명이나 선언을 채택한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약속간식이 판을 치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 외세에 의해 향단된 국토와 분열된 민족의 운명을 밖에 나가 호소하고 《역히우고 역히버린》 통일을 조선반도의 《통일》로 이어나갈것이라고 께쳐대던것은 그야말로 제정신이 쭉 빠진 망상이며 분별을 잃은 망정이다.

결국 박근혜는 인간장제기들인 《탈북자》들까지 동부도이쉴란트출신인 그 나라 수상처럼 키워 《승공통일》전선에 내세우려고 하고 떠벌이고 50년전 《과잉의 기적》에 현혹되어 사대매국의 산물인 《통일》의 기적》이라는것을 이룩하여놓은 제에 비의 뒤를 이어 《홍수통일》을 실현해보려는 본성까지 서슴없이 드러내놓았다.

제방이 아닌 남의 나라 땅에서, 제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앞에서 발표하였으므로 그 출발과 의미자체부터 뼈뿔어진 《드레즈덴선언》은 우리 민족분열사의 곁에자기의 부끄러운 행적만을 남긴 반역자의 역군을 너두리로 기록되어있을것이다.

둘째로, 《드레즈덴선언》은 북남관계의 현 상황에 대한 무지로부터 아무런 헤럴방도 없이 위선과 기만으로 여론을 조작한 반통일본자의 놈들이다.

《선언》에서 밝힌 《대북3대제언》이라는

것은 북남관계개선과 발전과는 거리가 먼 부차적이고 사물사적인것들뿐이다.

인도주의적문제해결과 관련한 내용만 보아도 흠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경제화》하는것으로 북과 남 사이에 《신뢰》를 쌓는다는것이며 국제사회와 함께 그 무슨 《산모》와 유아영양지원》으로 《통일미래》를 열어 나간다는것이다.

현 북남관계가 그 무슨 《상봉》이 없어 불신과 적대관계로 격화되고 《영양지원》이 부족하여 전쟁상태로 치닫고있다고 보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을것이다.

최근 우리의 성의와 아량에 의해 금강산에서 흠어진 가족, 친척상봉이 성사되었지만 남조선당국이 외세와의 침략전쟁영웅을 벌리고 인간추출들을 동원한 반공투쟁극대살포와 보수언론매체들의 분별없는 비방중상, 군부파쇼관들의 야만적인 해상강제행위에 매달린것 등으로 북남관계는 대결과 전쟁병위에서 헤어오지 못하고있다.

이것은 《상봉》이나 《지원》에 따른 인도주의적문제해결이 북남관계개선의 선차적인요소가 아니라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보아야 한다.

40여년전에 채택된 7.4북남공동성명으로부터 시작하여 북남기본합의서,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에 이르기까지 북남관계개선을 위해 내세운 최우선적인 과제는 언제나 정치군사적대결상태의 해소였다.

우리가 지난 1월 18일 남조선당국에 보낸 중재제안과 공개서한에서 호상 비방중상과 군사적대결행위를 중지하고 핵재난방지조치부터 먼저 취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하면서 구경은 천에한 정치군사적대결상태해소가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초미의 급선무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분별된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이란 적어도 이 초보적인 상식만은 알고있어야 할것이다.

그러나 박근혜는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력》에 기초한 그 무슨 《공동통일》, 《교류》를 통한 《공동성명》이라는것이 마치 북남관계개선의 1차적인 과제인것처럼 떠

벌것으로 하여 자기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무지하고 아둔하며 현실도 무시할줄 모르는 논론 소경에 불과한 존재인가 하는것을 스스로 드러내보였다.

문제로 되는것은 《지원》과 《협력》, 《교류》에 대하여 께쳐대면서 그 누구의 《고통》이나, 《애고픔》이나 하며 없는 사실까지 날조하여 우리에게 대한 비방중상을 열을 올린것이였다.

실보가 못되던 말투도 고약하고 속물이 편안치 않던 행동거지 또한 불분하다 하였다.

박근혜의 그 무슨 《대북3대제언》을 두고 내외신모두가 한결같이 《관계개선의 걸림돌인》(5.24대북조치)해제와 정세완화에 필요한 큰 흐름은 피하고 사물사적인 것만 언급한 제언, 《정치군사분리의 원용을 가 다치지도 못하고 결과지만 혼들어버린 사물사적제언》, 《북의 감정만 사게 한 자극적인 제언》이라고 혹평하고있는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셋째로, 《드레즈덴선언》은 나라와 민족의 이익은 덮어두고 몇종교도 안되는 자기의 욕망을 울려보려고 께친 반통일본자이다.

지금 사람들은 박근혜가 무엇때문에 5박 6일동안이나 시간을 허비하며 가까운 지역도 아닌 유럽땅에까지 찾아가 《영화 통일구상》이란것을 발표하였는가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있다.

도이쉴란트는 《홍수통일》로 이루어진 나라이다.

바로 그곳에서 박근혜가 자기가 구상하고 있다는 《통일》에 대해 입을 놀렸다는것만으로도 불분한 수내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실제로 박근혜는 베를린정변이 있던 장소와 드레즈덴시내 등지를 돌아다니며 이 나라 통일방식이 자기의 《통일모델》이라고 뇌까리대고 하였고 그 나라 수상의 출신지까지 거론해대며 인간쓰레기들인 《탈북자》들을 《통일》실현의 걸림돌로 내세우려는 흉심으로 거리없이 내뱉었다.

지어 중에서도 제 배후주도 못하고 그만둔 그 주제의 대화경력까지 입을 올리고 그

나라 대학의 《교육리듬》까지 자상히 알고 있는것처럼 유식을 뽐내면서 마치 자기가 우리를 해아라는 《자선가》나 《민족을 걱정하는 애국자》가 되는듯이 행세하기도 하였다.

어른들은 박근혜가 《드레즈덴선언》을 통하여 자기의 《통일론》이 결국 《자유민주주의체제》에 의한 《리념적홍수통일》이고 경제적인 《일방적홍수통일》이며 군사력에 의한 《침략통일》이라는것을 온 세상에 공식선포하였다고 신랄하게 까매했다.

지금 박근혜당국의 외교, 통일분야의 중추를 이루고있는 윤병세같은 정치적파쇼꾼들이 하는 무서운줄 모르고 지난 시기 이룩된 모든 통일방안들을 전면무효화해 버리면서 오직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따른 통일만을 실현해야 한다고 청을 돌리고 통일제와 같은 떨지지를 역시 우리 민족을 이르는 영원히 통일을 실현할수 없으며 오직 미국과 주변국들에게 리득을 넘겨주며 그들의 동의를 받아야만 통일될수 있다는 천하무돈한 망언을 함부로 늘어놓고있는 것도 우연하다고 볼수 없다.

세상에 발표되지 않았것조차 못한 《드레즈덴선언》은 입에 올리기조차 더러운 민족굴레와 위선, 반통일수내로 얼룩진 시대의 퇴락품을 밝힌다.

남조선당국이 굳이 《드레즈덴선언》에 대한 우리의 공식리장을 요구해온 이상 우리는 이런 기회에 다음과 같은 원칙적인 리장을 밝힌다.

우선 북남관계를 약화시키고 민족의 전도를 막아내려는 첫째가는 화근이 박근혜의 입이라는것을 똑바로 명심해야 할것이다.

지금 북남관계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불신과 대결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중요한 원인이 박근혜의 입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일이 열리면 동족을 시비하고 험뜯는 온갖 악모는 오설과 악의에 찬 험담이 쏟아져나오고 그것으로 북남관계가 더 위태로워지고있는것이다.

모든 재년의 청구로 막연된 박근혜의 불꽃사나운 입투성이 단거만 있어도 북남관

계가 지금보다는 한결 더 편안해지리라는 것이 민심의 일치한 반응이다.

박근혜는 또한 《신뢰》라는 낱아끼진 간판을 더이상 자기의 불분한 수내를 가진 우는 지장물로 내치지 말아야 할것이다.

사람들사이에 서로 믿고 의지하며 약속을 지키는것으로 길어지는 신뢰는 참으로 고상하고 아름답다.

신뢰라는 말이 불신을 조정하고 대결을 고취하는 불분한 기도를 가리우며 민족을 기만하는 면사포로 악용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박근혜가 력대 그 어느 통치배보다 《신뢰조성》에 대해 많이 위우고있지만 북남관계가 왜 신뢰조성의 길에 들어서지 못하고 그와 반대되는 길로 걸잡을수 없이 역행하고 있는가를 심취히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어두운 과거에 집착하는 시대착오적인 사고와 행동에 중지부를 썩어야 할것이다.

《유신》의 향수에 젖어 불미스러운 과거를 되살려보려는것보다 더 어리석고 허망한 처사는 없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비의 이데올로기 《한강변의 기적》에 대해, 《경제성장의 탄탄한 기초를 쌓은 그때》에 대해 애들러 력설해대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민주주의의 발달과 《유신》독재로 비명횡사당한 불운의 교훈을 되새기는것이 좋겠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루고 자주적인 평화통일로 나가는것은 막을수 없는 정의의 이데올로기이다.

그 누구도 이에 역행할수 없다.

박근혜도 예외가 아니다.

만약 지금까지처럼 돌아간다면 입기중에는 청의대를 자기의 산 무덤으로 만들어놓을수 있으며 입기후에는 처형의 울가미가 차례질수 있다는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부질없는 허튼짓에 시간을 허송할것이 아니라 한가지라도 나라와 민족의 리익에 부합되는 일을 찾아야하는것이 정명을 부지하는데 더 유익할것이다.

주제103(2014)년 4월 12일 평 양

# 수도시민들은 문화적이고 건전하게 살며 일해나가자

수도로 약동하는 선군조선의 수도 평양에 문명의 바람이 분다.

불꽃은 창천거리와 온하과 한지거리로 거닐며 세계를 내다보는 수도시민들의 눈빛이 달무리고 미림승마구마부머 수물놀이장에있는 유쾌한 시민들의 가슴을 레일에 대한 희망으로 부풀어오르게 한다.

수도의 곳곳에 현대적으로 꾸러진 공원에서, 로스카제 스타트바이며 자기 마음, 자기 일터마다 푸른 잔디를 심어가는 경정바람은 얼마나 좋은가. 수도시민들의 생활의 갈피갈피에 희열과 향만을 더해주는 문명바람, 수도 평양의 진보를 앞당겨가는 건축예술의 새로운 문명바람!

수도시민들은 잘 알고있다. 남마다 생활의 갈피갈피에 스며드는 그 문명바람이 이 땅에서 하루빨리 사회주의문명국가를 일떠세워 우리 인민들이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려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불같은 헌신으로 이루어진것이라는것을, 수도 평양에서부터 21세기의 새로운 문명개화기를 펼쳐려하는것이 우리 당의 뜻이라는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있다.

하기에 사회주의문명생활을 남먼저 마중가는 수도시민들의 가슴은 뜨겁다.

사회주의문명국의 주인으로 값높은 삶을 누리려갈 맹세 또한 높다.

수도로 약동하는 선군조선의 수도 평양에 문명의 바람이 분다.

불꽃은 창천거리와 온하과 한지거리로 거닐며 세계를 내다보는 수도시민들의 눈빛이 달무리고 미림승마구마부머 수물놀이장에있는 유쾌한 시민들의 가슴을 레일에 대한 희망으로 부풀어오르게 한다.

수도의 곳곳에 현대적으로 꾸러진 공원에서, 로스카제 스타트바이며 자기 마음, 자기 일터마다 푸른 잔디를 심어가는 경정바람은 얼마나 좋은가. 수도시민들의 생활의 갈피갈피에 희열과 향만을 더해주는 문명바람, 수도 평양의 진보를 앞당겨가는 건축예술의 새로운 문명바람!

수도시민들은 잘 알고있다. 남마다 생활의 갈피갈피에 스며드는 그 문명바람이 이 땅에서 하루빨리 사회주의문명국가를 일떠세워 우리 인민들이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려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불같은 헌신으로 이루어진것이라는것을, 수도 평양에서부터 21세기의 새로운 문명개화기를 펼쳐려하는것이 우리 당의 뜻이라는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있다.

하기에 사회주의문명생활을 남먼저 마중가는 수도시민들의 가슴은 뜨겁다.

사회주의문명국의 주인으로 값높은 삶을 누리려갈 맹세 또한 높다.

수도로 약동하는 선군조선의 수도 평양에 문명의 바람이 분다.

불꽃은 창천거리와 온하과 한지거리로 거닐며 세계를 내다보는 수도시민들의 눈빛이 달무리고 미림승마구마부머 수물놀이장에있는 유쾌한 시민들의 가슴을 레일에 대한 희망으로 부풀어오르게 한다.

수도의 곳곳에 현대적으로 꾸러진 공원에서, 로스카제 스타트바이며 자기 마음, 자기 일터마다 푸른 잔디를 심어가는 경정바람은 얼마나 좋은가. 수도시민들의 생활의 갈피갈피에 희열과 향만을 더해주는 문명바람, 수도 평양의 진보를 앞당겨가는 건축예술의 새로운 문명바람!

수도시민들은 잘 알고있다. 남마다 생활의 갈피갈피에 스며드는 그 문명바람이 이 땅에서 하루빨리 사회주의문명국가를 일떠세워 우리 인민들이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려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불같은 헌신으로 이루어진것이라는것을, 수도 평양에서부터 21세기의 새로운 문명개화기를 펼쳐려하는것이 우리 당의 뜻이라는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있다.

하기에 사회주의문명생활을 남먼저 마중가는 수도시민들의 가슴은 뜨겁다.

사회주의문명국의 주인으로 값높은 삶을 누리려갈 맹세 또한 높다.

수도로 약동하는 선군조선의 수도 평양에 문명의 바람이 분다.

불꽃은 창천거리와 온하과 한지거리로 거닐며 세계를 내다보는 수도시민들의 눈빛이 달무리고 미림승마구마부머 수물놀이장에있는 유쾌한 시민들의 가슴을 레일에 대한 희망으로 부풀어오르게 한다.

수도의 곳곳에 현대적으로 꾸러진 공원에서, 로스카제 스타트바이며 자기 마음, 자기 일터마다 푸른 잔디를 심어가는 경정바람은 얼마나 좋은가. 수도시민들의 생활의 갈피갈피에 희열과 향만을 더해주는 문명바람, 수도 평양의 진보를 앞당겨가는 건축예술의 새로운 문명바람!

수도시민들은 잘 알고있다. 남마다 생활의 갈피갈피에 스며드는 그 문명바람이 이 땅에서 하루빨리 사회주의문명국가를 일떠세워 우리 인민들이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려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불같은 헌신으로 이루어진것이라는것을, 수도 평양에서부터 21세기의 새로운 문명개화기를 펼쳐려하는것이 우리 당의 뜻이라는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있다.

하기에 사회주의문명생활을 남먼저 마중가는 수도시민들의 가슴은 뜨겁다.

사회주의문명국의 주인으로 값높은 삶을 누리려갈 맹세 또한 높다.

수도로 약동하는 선군조선의 수도 평양에 문명의 바람이 분다.

불꽃은 창천거리와 온하과 한지거리로 거닐며 세계를 내다보는 수도시민들의 눈빛이 달무리고 미림승마구마부머 수물놀이장에있는 유쾌한 시민들의 가슴을 레일에 대한 희망으로 부풀어오르게 한다.

수도의 곳곳에 현대적으로 꾸러진 공원에서, 로스카제 스타트바이며 자기 마음, 자기 일터마다 푸른 잔디를 심어가는 경정바람은 얼마나 좋은가. 수도시민들의 생활의 갈피갈피에 희열과 향만을 더해주는 문명바람, 수도 평양의 진보를 앞당겨가는 건축예술의 새로운 문명바람!

수도시민들은 잘 알고있다. 남마다 생활의 갈피갈피에 스며드는 그 문명바람이 이 땅에서 하루빨리 사회주의문명국가를 일떠세워 우리 인민들이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려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불같은 헌신으로 이루어진것이라는것을, 수도 평양에서부터 21세기의 새로운 문명개화기를 펼쳐려하는것이 우리 당의 뜻이라는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있다.

하기에 사회주의문명생활을 남먼저 마중가는 수도시민들의 가슴은 뜨겁다.

사회주의문명국의 주인으로 값높은 삶을 누리려갈 맹세 또한 높다.

## 주 인 의 자 격

《별개 아닙니다. 전번 비바람때문인지 명경공역에 흠이 생겼길래...》

우리에게는 대뜸 그가 도로관리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짐작과는 달리 그는 이웃군에 불일이 있어 명경공역 넘어가던 중이었습니다. 자기 고쳐쌓은 옹벽을 다시 한번 칸칸히 살펴본 후 길손은 자전거를 타고 명경을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윽고 그의 모습은 우리의 시야에서 멀어져갔다. 그러나 그가 흔연히 남기고간 말이 우리의 귀에서 오래도록 떠날줄 몰랐다.

《도로관리에 뭐 주인이 따로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리용하는 도로인데...》

무릇 주인이란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요, 주인은 성원들이 자기 운명을 자신의 손에 틀어쥐고 이 세상 가장 값높고 금지높은 삶을 누리려는 우리 나라에서 주인이라는 말은 곧 근로인민대중-자기자신을 가리키는 대명사이기도 하다. 하기에 이 땅에서는 누구나 병이 나면의 레히 병원을 찾고 자식이 학교 갈 나이가 되면 부모들이 자식

《별개 아닙니다. 전번 비바람때문인지 명경공역에 흠이 생겼길래...》

우리에게는 대뜸 그가 도로관리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짐작과는 달리 그는 이웃군에 불일이 있어 명경공역 넘어가던 중이었습니다. 자기 고쳐쌓은 옹벽을 다시 한번 칸칸히 살펴본 후 길손은 자전거를 타고 명경을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윽고 그의 모습은 우리의 시야에서 멀어져갔다. 그러나 그가 흔연히 남기고간 말이 우리의 귀에서 오래도록 떠날줄 몰랐다.

《도로관리에 뭐 주인이 따로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리용하는 도로인데...》

무릇 주인이란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요, 주인은 성원들이 자기 운명을 자신의 손에 틀어쥐고 이 세상 가장 값높고 금지높은 삶을 누리려는 우리 나라에서 주인이라는 말은 곧 근로인민대중-자기자신을 가리키는 대명사이기도 하다. 하기에 이 땅에서는 누구나 병이 나면의 레히 병원을 찾고 자식이 학교 갈 나이가 되면 부모들이 자식

## 아름다운 품성, 돌보이는 모습

《별개 아닙니다. 전번 비바람때문인지 명경공역에 흠이 생겼길래...》

우리에게는 대뜸 그가 도로관리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짐작과는 달리 그는 이웃군에 불일이 있어 명경공역 넘어가던 중이었습니다. 자기 고쳐쌓은 옹벽을 다시 한번 칸칸히 살펴본 후 길손은 자전거를 타고 명경을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윽고 그의 모습은 우리의 시야에서 멀어져갔다. 그러나 그가 흔연히 남기고간 말이 우리의 귀에서 오래도록 떠날줄 몰랐다.

《도로관리에 뭐 주인이 따로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리용하는 도로인데...》

무릇 주인이란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요, 주인은 성원들이 자기 운명을 자신의 손에 틀어쥐고 이 세상 가장 값높고 금지높은 삶을 누리려는 우리 나라에서 주인이라는 말은 곧 근로인민대중-자기자신을 가리키는 대명사이기도 하다. 하기에 이 땅에서는 누구나 병이 나면의 레히 병원을 찾고 자식이 학교 갈 나이가 되면 부모들이 자식

《별개 아닙니다. 전번 비바람때문인지 명경공역에 흠이 생겼길래...》

우리에게는 대뜸 그가 도로관리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짐작과는 달리 그는 이웃군에 불일이 있어 명경공역 넘어가던 중이었습니다. 자기 고쳐쌓은 옹벽을 다시 한번 칸칸히 살펴본 후 길손은 자전거를 타고 명경을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윽고 그의 모습은 우리의 시야에서 멀어져갔다. 그러나 그가 흔연히 남기고간 말이 우리의 귀에서 오래도록 떠날줄 몰랐다.

《도로관리에 뭐 주인이 따로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리용하는 도로인데...》

무릇 주인이란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요, 주인은 성원들이 자기 운명을 자신의 손에 틀어쥐고 이 세상 가장 값높고 금지높은 삶을 누리려는 우리 나라에서 주인이라는 말은 곧 근로인민대중-자기자신을 가리키는 대명사이기도 하다. 하기에 이 땅에서는 누구나 병이 나면의 레히 병원을 찾고 자식이 학교 갈 나이가 되면 부모들이 자식

《별개 아닙니다. 전번 비바람때문인지 명경공역에 흠이 생겼길래...》

우리에게는 대뜸 그가 도로관리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짐작과는 달리 그는 이웃군에 불일이 있어 명경공역 넘어가던 중이었습니다. 자기 고쳐쌓은 옹벽을 다시 한번 칸칸히 살펴본 후 길손은 자전거를 타고 명경을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윽고 그의 모습은 우리의 시야에서 멀어져갔다. 그러나 그가 흔연히 남기고간 말이 우리의 귀에서 오래도록 떠날줄 몰랐다.

《도로관리에 뭐 주인이 따로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리용하는 도로인데...》

무릇 주인이란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요, 주인은 성원들이 자기 운명을 자신의 손에 틀어쥐고 이 세상 가장 값높고 금지높은 삶을 누리려는 우리 나라에서 주인이라는 말은 곧 근로인민대중-자기자신을 가리키는 대명사이기도 하다. 하기에 이 땅에서는 누구나 병이 나면의 레히 병원을 찾고 자식이 학교 갈 나이가 되면 부모들이 자식



수도의 거리를 아름다운 꽃들로 이채롭게 장식하고있다. -중구역원림사업소에서-

《별개 아닙니다. 전번 비바람때문인지 명경공역에 흠이 생겼길래...》

우리에게는 대뜸 그가 도로관리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짐작과는 달리 그는 이웃군에 불일이 있어 명경공역 넘어가던 중이었습니다. 자기 고쳐쌓은 옹벽을 다시 한번 칸칸히 살펴본 후 길손은 자전거를 타고 명경을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윽고 그의 모습은 우리의 시야에서 멀어져갔다. 그러나 그가 흔연히 남기고간 말이 우리의 귀에서 오래도록 떠날줄 몰랐다.

《도로관리에 뭐 주인이 따로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리용하는 도로인데...》

무릇 주인이란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요, 주인은 성원들이 자기 운명을 자신의 손에 틀어쥐고 이 세상 가장 값높고 금지높은 삶을 누리려는 우리 나라에서 주인이라는 말은 곧 근로인민대중-자기자신을 가리키는 대명사이기도 하다. 하기에 이 땅에서는 누구나 병이 나면의 레히 병원을 찾고 자식이 학교 갈 나이가 되면 부모들이 자식

# 평양송가, 친선 단결의 노래 높이 울려 퍼지는 축전도시

## 제29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첫 공연 성황리에 진행

백두의 천출위인을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칭송하는 국제적인 대예술제인 제29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첫 공연이 12일 평양시내의 극장들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관객들은 예술단체들, 명배우들, 국제콩쿨수상자들을 비롯하여 수십개 나라의 예술인들과 해외동포예술인들이 출연한 공연무대에는 자주의 기치따라 친선의 뉴대를 강화하며 평화로운 새 세계를 살려나갈 인민들의 지향이 담겨진 사상에 예술성이 높고 민족적색채가 짙은 다채로운 종목들이 울렸다.

출연자들은 공연들을 통해

어 시대의 역사에 영원 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린 위대한 김일성대원님과 김정일대원님 그리고 특출한 정치실력으로 선군조선을 강성병영의 한길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만민의 다함없는 호모의 정을 예술적화폭으로 감명있게 펼쳐 보였다.

축전조직위원회 성원들, 관객부문 일꾼들, 시내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주조 외교대표들과 우리 나라에 체류하고있는 외국손님들, 해외동포들이 공연을 보았다.

**동평양대극장에서**

중국예술단(동방가무단), 말레이시아 마이 하모니카 월드중주단, 웨남국립가무극장에 출연한 동평양대극장에서 공연을 진행하였다.

말레이시아 마이 하모니카 월드중주단은 우리 나라 노래 《장군님 백마라고 달리신다》를 비롯한 여러 노래들을 열정적으로 연주하였다.

중주단은 종목들에서 잃었던 조국을 찾아주시고 이 땅에 자주, 자립, 자위로 존엄높은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워주시기 위한 대원수님들의 위인상을 열렬히 칭송하였다.

《중성의 노래》와 《영광을 드리지 위대한 우리 당에》와 같은 우리 나라 노래들을 다양한 형식의 무용으로 부른 웨남국립가무극장에 출연한 공연은 높은 예술적기량으로 하여 관람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우리 나라 노래 《내 나라》를 특색있는 모노코드의 연주로 잘 형상화한 출연자들은 기악중주 《동방의 태양》 등의 종목들에서도 관객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극장에서**

그러고서 《오목백과 무르익고 금은보화가 가득한 우리 조국의 아름다움을 중국의 전통적인 민족악기 이호의 독특한 음색에 담아 형상화하였다.

무용 《북춤》, 《수목천서》, 《번영하는 시대의 모습》 등에서 출연자들은 작품의 내용을 우아하고 불꽃적인 출가락에 담아 인상깊게 보여주었다.

《중성의 노래》와 《영광을 드리지 위대한 우리 당에》와 같은 우리 나라 노래들을 다양한 형식의 무용으로 부른 웨남국립가무극장에 출연한 공연은 높은 예술적기량으로 하여 관람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우리 나라 노래 《내 나라》를 특색있는 모노코드의 연주로 잘 형상화한 출연자들은 기악중주 《동방의 태양》 등의 종목들에서도 관객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모란봉극장에서**

오스트리아 원목관중주단, 벨가리아 와르나극장 명배우 일행, 프랑스실내악단 현악4중주단은 모란봉극장에서 공연하였다.

벨가리아 와르나극장 명배우 일행은 오스트리아 원목관중주단은 우리 나라 노래 《그대는 어머니》 등 여러 기악곡들을 연주하였다.

한없이 위대하고 자애로운 어머니와 같이 이 나라의 천만 자식들을 품어 안아 영웅으로 키워주는 어머니당에 대한 노래는 관람자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였다.

로씨니작곡가 《세빌라의 리발사》중에서 《로지나의 아리아》와 《회가의 아리아》를 감동깊게 부른 벨가리아배우들의 공연은 관람자들로 하여금 작품의 세계에 심취되게 하였다.

**청년중앙회관에서**

청년중앙회관에서는 몽골전국협주단, 핀란드취주악단, 우크라이나 끼에부드극장무용단이 공연무대를 펼쳤다.

몽골전국협주단 예술인들은 위대한 태양의 역사를 빛내이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명도를 충직하게 받들려는 우리 인민의 마음을 담은 노래 《한마음 따르렵니다》를 훌륭하게 형상화하였다.

출연자들은 자기 민족의 독특한 개성을 살린 세련되고 우아한 종목들을 올려 관람자들을 기쁘게 해주었다.

그들이 부른 남성소합창 《용감한 병사들》, 《행진곡》 등의 종목들은 공연분위기를 높여주었다.

그들은 노래 《전설적인 기사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대학 음악당에서**

벨스카 쇼팽음악종합대학 명배우일행, 이탈리아가극가수, 도이쉴란드 크로이젠 콘서트협회 첼로독주자, 재미조선인예술단, 제오스트랄리아조선인독창가일행의 공연이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대학 음악당에서 있었다.

재미조선인예술단은 피아노독주 《조선은 하나다》에서 분별의 아름다움을 하루빨리 끝장내고 조국통일을 기어이 이룩하고야말 우리 민족의 굳은 결의를 노래선물에 힘있게 반영하였다.

제미동포취주치는 흥취넘어선서도 감미로운 선율이 풍성한 청산별의 전경을 담은 관현악 《청산별에 봉인이 왔네》를 곡상의 요구에 맞게 잘 지휘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대한 다함없는 호모의 정을 안고 제오스트랄리아독창가가 부른 노래 《불타는 소원》은 관객들의 심금을 울려잡았다.

특히 노래 《조국찬가》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빛내어주시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끄시는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감정과 무장조국건설에 한몸바칠 우리 인민들의 의지를 풍부한 성량에 담아 잘 불러 재청송리가 터져나오게 하였다.

벨스카 쇼팽음악종합대학 명배우일행과 이탈리아가극가수, 도이쉴란드 크로이젠 콘서트협회 첼로독주자가 든 위대한 국제적인 예술축전의 품격에 맞게 종목들에서 자기들의 재능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평양대극장에서**

평양대극장에서는 벨라루스 국립무용단, 인도네시아 드위키 음악단, 스위스대중가요가수, 제일조선인예술단의 공연이 있었다.

벨라루스국립무용단의 여성독창가수는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훌륭히 불러 관객들의 심금을 울렸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불멸의 업적과 위대성을 높이 칭송하는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류의 뜨거운 마음을 담은 혁명송가가 장내에 힘있게 울려 퍼지자 관람자들은 열광적인 박수로 화답하였다.

무용 《크리비치춤》, 민속무용 《라보니하》 등의 종목들에서 벨라루스예술인들은 기백있는 춤동공과 재치있는 기교로 관객들의 절찬을 받았다.

우리 나라 노래 《배우자》와 민족적색채가 짙은 《인도네시아 민요》를 부른 무용수들은 성량으로 잘 형상화한 인도네시아 드위키음악단의 여성독창가

수도 관람자들의 마음을 울려잡았다.

스위스대중가요가수는 노래 《우리를 믿기에》를 세련된 피아노연주와 함께 독특한 음색으로 불러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받았다.

제일조선인예술단은 흥성5중창과 무용 《민족의 제일행운》으로 무대를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예술인들은 노래 《조국을 노래하네》, 《수령님 같은신분 세상에 없습니다》 등의 종목들에서 제일동포들을 한몸에 안아주시기 위한 대원수님에 대한 그리움을 절절하게 노래하였다.

여성3중창 《그이 없인 못살아》, 흥성5중창 《조국찬가》를 비롯한 종목들에서 그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혁명업적을 빛나게 세우실성해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받들어 모시고 그의 명도따라 조국인민들과 마음을 같이해 나가는 제일동포들의 불타는 의지를 인상깊게 보여주었다.

**봉화예술극장에서**

봉화예술극장에서는 로씨야 내무성 내무군악대미야힐주단, 우바기타독주자, 제중조선인 예술단, 국제조선인총연맹합회 예술단의 공연이 진행되었다.

여러차례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공연을 진행한 영광을 지닌 로씨야 내무성 내무군악대미야힐주단이 공연무대를 특색있게 장식하였다.

협주단은 남성독창과 합창 《조선은전사의 노래》, 무용 《승리의 춤》 등의 종목들에서 로씨야군대와 인민의 열렬한 조국애와 락천적인 생활모습, 민족적정서를 잘 보여주었다.

우바기타독주자는 우바노래 《판파나에라》를 높은 기량으로 훌륭히 연주하여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제중조선인예술단의 남성가수는 독창 《아 수령님 품이어》에서 지난날 착취받고 압박받던 우리 인민이 위대한 대원수님의 따스로운 품속에서 나라의 주인으로, 영웅으로 자라나는데 대하여 감동깊게 노래하였다.

남성독창 《내 조국의 밝은 달아》의 노래선물이 울려나오자 관람자들은 한평생 조국수호의 진초선에 계시며 이 나라의 높고 험한 명길을 다 넘어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장정의 길이 어려와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흥성2중창 《우리 집사람》, 여성독창과 무용 《영변의 비단

**극장에서**

로 훌륭히 연주하여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제중조선인예술단의 남성가수는 독창 《아 수령님 품이어》에서 지난날 착취받고 압박받던 우리 인민이 위대한 대원수님의 따스로운 품속에서 나라의 주인으로, 영웅으로 자라나는데 대하여 감동깊게 노래하였다.

남성독창 《내 조국의 밝은 달아》의 노래선물이 울려나오자 관람자들은 한평생 조국수호의 진초선에 계시며 이 나라의 높고 험한 명길을 다 넘어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장정의 길이 어려와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흥성2중창 《우리 집사람》, 여성독창과 무용 《영변의 비단

**평양교예극장에서**

평양교예극장에서는 중국예술단(산동성교예단), 로씨야가교예회사교예단, 에질트교예단, 타이요술가일행의 다채로운 교예무대가 펼쳐졌다.

공연은 중국예술단(산동성교예단)의 체력교예 《즐거움》로 시작되었다.

출연자들은 여러 갈래의 줄들을 솜씨있게 넘는 등 높은 기교들을 보여주어 관객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체력교예 《발견회》에 출연한 배우들은 뒤로돌기와 발우에서의 중심잡기, 도립전회를 비롯한 여러가지 동작들을 능숙하게 수행하였다.

지난 시기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여러차례 참가하여 우리 인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준 로씨야가교예회사교예단 배우들은 《손재주》에서 여러 특기를 보여주었다.

**평양교예극장에서**

평양교예극장에서는 중국예술단(산동성교예단), 로씨야가교예회사교예단, 에질트교예단, 타이요술가일행의 다채로운 교예무대가 펼쳐졌다.

공연은 중국예술단(산동성교예단)의 체력교예 《즐거움》로 시작되었다.

출연자들은 여러 갈래의 줄들을 솜씨있게 넘는 등 높은 기교들을 보여주어 관객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체력교예 《발견회》에 출연한 배우들은 뒤로돌기와 발우에서의 중심잡기, 도립전회를 비롯한 여러가지 동작들을 능숙하게 수행하였다.

지난 시기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여러차례 참가하여 우리 인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준 로씨야가교예회사교예단 배우들은 《손재주》에서 여러 특기를 보여주었다.

**평양교예극장에서**

평양교예극장에서는 중국예술단(산동성교예단), 로씨야가교예회사교예단, 에질트교예단, 타이요술가일행의 다채로운 교예무대가 펼쳐졌다.

공연은 중국예술단(산동성교예단)의 체력교예 《즐거움》로 시작되었다.

출연자들은 여러 갈래의 줄들을 솜씨있게 넘는 등 높은 기교들을 보여주어 관객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체력교예 《발견회》에 출연한 배우들은 뒤로돌기와 발우에서의 중심잡기, 도립전회를 비롯한 여러가지 동작들을 능숙하게 수행하였다.

지난 시기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여러차례 참가하여 우리 인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준 로씨야가교예회사교예단 배우들은 《손재주》에서 여러 특기를 보여주었다.

**평양교예극장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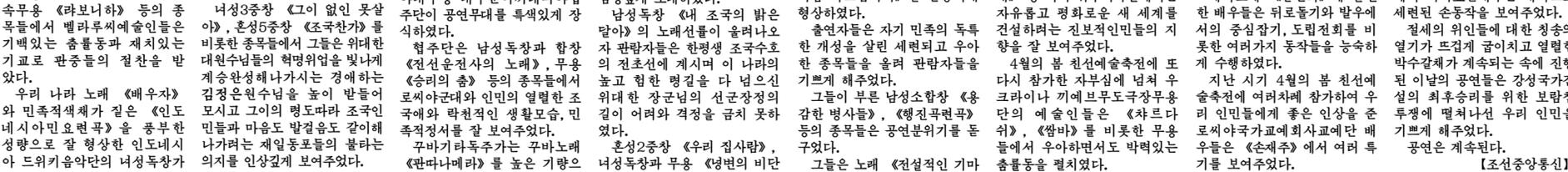
평양교예극장에서는 중국예술단(산동성교예단), 로씨야가교예회사교예단, 에질트교예단, 타이요술가일행의 다채로운 교예무대가 펼쳐졌다.

공연은 중국예술단(산동성교예단)의 체력교예 《즐거움》로 시작되었다.

출연자들은 여러 갈래의 줄들을 솜씨있게 넘는 등 높은 기교들을 보여주어 관객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체력교예 《발견회》에 출연한 배우들은 뒤로돌기와 발우에서의 중심잡기, 도립전회를 비롯한 여러가지 동작들을 능숙하게 수행하였다.

지난 시기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여러차례 참가하여 우리 인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준 로씨야가교예회사교예단 배우들은 《손재주》에서 여러 특기를 보여주었다.



제일조선인예술단의 흥성5중창 《조국찬가》, 몽골전국협주단의 여성독창과 남성소합창 조선노래 《한마음 따르렵니다》, 중국예술단(산동성교예단)의 《발재주》, 여성독창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노래》



제일조선인예술단의 흥성5중창 《조국찬가》



몽골전국협주단의 여성독창과 남성소합창 조선노래 《한마음 따르렵니다》



중국예술단(산동성교예단)의 《발재주》

###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외국 손님들 꽃바구니 진정**

만수대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12일 태양절에 즈음하여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일행, 일본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연구 전국연합회대표단과 국제콩쿨상연맹-제27차 만경대상 마라손경기대회 참가자들이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그들은 주체의 광휘로운 빛바로 인류가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 주시었으며 정력적인 내외활동으로 나라들사이의 친선관계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하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담아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다.

꽃바구니들의 맹기에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총비서의 영생》을 삼가 기원합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등의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한편 이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을 찾아 로씨야 편다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연구소 대표단, 로씨야 김원균명칭 진성동맹 대표단, 로씨야 원동지역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연구협회 대표단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 한일영학생 국제예술콩쿨에서 특등쟁취

우리 나라의 한일영학생이 3월 22일부터 4월 6일까지 로씨야의 수도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제3차 국제예술콩쿨 《화성》에서 특등을 쟁취하였다.

콩쿨은 7살부터 18살까지의 청소년들을 나이별로 기악, 성악, 무용, 창작부류로 나누어 기량수준에 따라 순위를 정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콩쿨에는 우리 나라와 로씨야, 벨라루스, 이탈리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청소년들 140여명이 참가하였다.

국제콩쿨무대에 처음 나선 8살 한일영학생은 높은 예술적기량을 요구하는 피아노조곡들을 훌륭히 연주함으로써 심사원들과 음악전문가들의 절찬을 받았다.

세계 여러 나라의 관복있는 피아노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이번 콩쿨에서 조선의 나이 어린 소녀인 한일영학생이 뛰어난 기량과 매력있는 연주로 파문을 일으켰다. 이번 콩쿨의 가장 큰 발견이라고 하면서 선군문화예술의 발전면모와 우리의 우월한 인재양성정책에 탄복을 금치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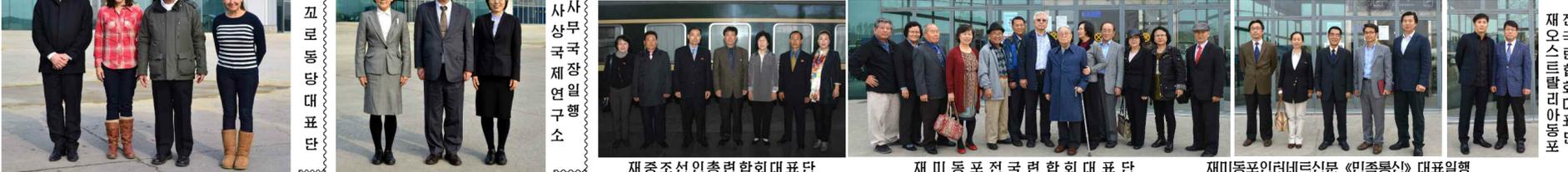
제막식에서는 한일영학생에게 특등상과 특등점이 수여되었다.

### 메히꼬로 동당 대표단 도착

태양절에 즈음하여 알베르도 아나야 구미에레스 전금지자를 단장으로 하는 메히꼬로동당 대표단이 12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박근광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맞이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메히꼬로동당 대표단,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재중조선인총련합회대표단, 재미동포전국련합회 대표단, 재미동포인터네트신문 《민족통신》 대표일행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재중조선인총련합회대표단, 재미동포전국련합회 대표단, 재미동포인터네트신문 《민족통신》 대표일행

